# “상근기는 참선, 하근기는 염불? 틀렸다”



선정겸수
월암 스님 지음
담앤북스
2만8000원

**참선과 염불 수행의 융회(融會)**
**선에서 정토 수용하는 ‘선정일치’**
**역대 선사들의 정토관 탐구**
**“수행 양극단 넘어 해탈의 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선을 선방에 앉는 좌선의 모습으로 국한시키거나 염불을 염불당의 염불 소리에 한정시키면 깨어 있고 열려 있는 수행이 되지 못한다.”

평생을 선 수행에 매진하던 수좌 스님들이 염불 수행을 겸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멀리는 조계종의 종지를 밝힌 중천조(重闡祖) 보조지눌(1158~1210) 선사가 〈염불요문(念佛要門)〉을 저술해 열 가지 염불법을 알렸고, 가까이로는 무주청화(1923~2003) 스님이 선정겸수(禪淨兼修)의 입장에서 염불선(念佛禪)을 주창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하고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잇고 있는 월암 스님(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은 최근 출간한 〈선정겸수〉에서 참선과 염불 수행법을 융회(融會)해 집대성했다. 오랜 세월 수행과 교화 현장에서 염불 행자들과 참선 공부에 향상이 더딘 불자들을 만나며 ‘선과 정토에 대해 지금까지 천착하고 참구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 보자’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9월 3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암 스님은 “선정겸수를 주장한다고 해서 ‘전향했다’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책에서는 선정겸수의 역사적 연원부터 확립과 전개 그리고 오늘날의 현황까지를 밝히고자 했다. 또 복을 성취하는 도구로서의 염불이 아닌, 염불 그대로가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 수증의 종지는 견성(見性)이고 정토 수증의 종지는 견불(見佛)”이라며 “종지의 견지에서 논하면, 견성과 견불을 함께 닦는 것이 선정겸수”라고 설명했다.

“정토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견불이란 마음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을 본다는 것은 선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의 마음 성품을 본다는 것이니, 중생의 성품이 불성이므로 선과 정토에서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견성과 견불은 결국 동일한 의미가 된다.”

책에서는 선의 참구와 정토의 염불이 어떻게 융회되고 회통되어 선정일치과 선정겸수가 이뤄져 ‘염불선’이라는 방편으로 제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특히 ‘선에서 정토를 수용하는 선정일치와 선정겸수의 사상과 실천’을 주로 설파한다.

1장에서는 원효 스님이 주장한 일심정토(一心淨土) 사상을 논구한다. 2장에서는 선종에서의 선정겸수의 연원을, 3장에서는 정토종에서의 선정겸수 연원을 밝힌다. 이어 4장에서는 선정일치와 선정겸수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실천한 영명연수, 몽산덕이, 중봉명본 선사 등을 사상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보조지눌, 태고보우, 나옹혜근, 청허휴정, 허주덕진, 무주청화 등 한국 선사들의 정토관을 탐구한다.




한국불교 선맥을 잇고 있는 월암 스님이 참선과 염불 수행의 융회를 집대성한 〈선정겸수〉를 출간했다. 사진은 9월 3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습.

월암 스님은 “선과 정토는 수행방법과 표면적 지향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두 전통 모두 중생이 본래 지닌 청정심, 즉 불성을 발형해 해탈하고자 하는 것을 최종 귀착점으로 한다”며 “궁극적으로 선과 정토는 둘이 아니며, 모든 중생이 청정한 진여불성의 자각을 실현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수행과 신행의 양극단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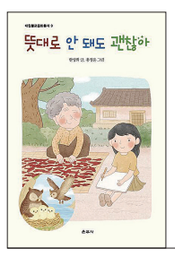
**▲월암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동헌 스님을 계사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국에 유학하여 중원의 여러 선종 조정을 참학하고 백림 선사, 진여 선사, 남화 선사, 용천 선사 등의 선원에서 안거 정진했다. 북경대학교 철학과에서 중국 철학을 공부하고 선학을 전공해 ‘돈오선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양사, 화엄사, 마곡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대승사, 기기암, 백담사, 한산사 등 제방 선원에서 54안거를 성만했다. 지리산 벽송사 선원장, 영천 은해사 기기암 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하며 선학 정립과 선원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는 〈간화정로〉,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선원청규〉(주편), 〈좌선요결〉, 〈니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생각 이전 자리에 앉아라〉, 〈선율겸행〉, 〈전등수필〉(1, 2권) 등이 있다.

#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보왕삼매론’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한상희 지음
용정운 그림
운주사 / 1만2800원

**우정·건강 등 열 가지 삶의 지혜**
**동화와 ‘생각거리’로 쉽고 재밌게**

전학을 온 뒤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던 지수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민서가 말을 걸어왔어요. 지수는 민서와 함께 하교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학원도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민서는 차갑게 변했어요.

나중에야 그 학원을 민서네 부모님이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된 지수는 ‘민서가 일부러 접근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에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최근 전학 온 미진이가 친근하게 말을 걸지만 ‘쟤는 또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접근하는 걸까?’ 의심이 들어요.

동화 ‘마음의 단짝’의 주인공 지수는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친구와의 관계로 힘들어 한다. “친구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의심하면서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그립기 때문이다.

〈보왕삼매론〉은 “친구를 사귈 때 내게 이롭기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 사람을 사귀는 데 내 이익만 앞세우면 의리를 잃기 쉽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귐을 길게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대로 숨김없는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자 지수와 미진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된다.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는 〈보왕삼매론〉에 담긴 열 가지 삶의 지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화로 엮은 책이다. ‘몸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회색곰 뭉치’와 ‘남이 내 뜻대로 다 따라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꼬마 너구리 뮤의 숲속 생활’, ‘억울함을 당해서 다 밝히려고 하지 말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상미의 눈물’ 등 10편의 동화가 실렸다.

각 동화에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는 ‘보왕 삼매 말씀’과 ‘지혜 보따리’를 덧붙여 동화가 주는 메시지를 새겨볼 수 있게 했다.

작가는 “〈보왕삼매론〉은 살면서 걸림돌을 만났을 때 생각을 바꾸면 장애가 되었던 걸림돌이 오히려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깨우쳐 준다”고 말한다. 동화작가 한상희 씨가 글을 쓰고 불교일러스트레이터 용정운 씨가 그림을 그렸다.

여수령 기자

# 오늘의 감성으로 번역한 ‘법구경’



법구경 마음에게 말을 걸다
윤창화 옮김
민족사 / 1만3500원

**부처님 가르침 423수 게송에 담아**
**문맥·운율 맞춰 간결한 시로 표현**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매듭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법구경〉 ‘쌍서품’ 중에서

‘불교 경전의 에센스’라 불리는 〈법구경〉은 팔리어로 〈담마빠다(Dhammapada)〉라고 하며 ‘가르침의 말씀’, ‘진리의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423수의 게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윤리, 도덕, 절제, 노력, 정진,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지혜, 명상, 수행, 해탈, 윤회, 열반 등 불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모두 아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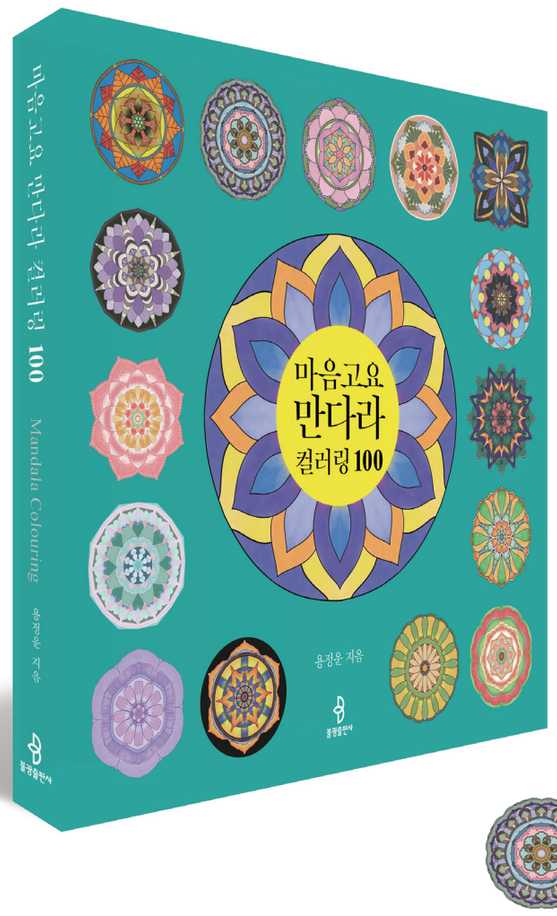
〈법구경 마음에게 말을 걸다〉는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가 〈법구경〉을 오늘의 감성으로 다시 번역하고 다듬은 책이다. 특히 경구들을 간결한 시 형태로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의 여러 번역을 참고하되 원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문장을 다듬고, 독자들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맥과 운율을 맞췄다. 경어체를 사용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좀 더 마음 깊게 다가가고 싶다”는 뜻에서다.

윤 대표는 “〈법구경〉은 붓다의 말씀 가운데 삶의 근본을 꿰뚫는 한 줄 문장들로 가득한 책”이라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을 마주하는 것 같다”고 감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구경〉을 눈앞에 둔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한다.

윤창화 대표는 평창 진부 출신으로 13년간 출가생활을 했다. 수계 후 8년 동안 탄허 스님 시봉을 했다. 1972년 해인사 강원,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 민족사를 설립했다.

저서로 〈왕초보, 선(禪)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당송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 〈불교사자성어〉, 〈불교지식꽁트〉 등 이 있다. 논문으로 ‘해방 후 역경의 성격과 의의’,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등을 썼다.

여수령 기자


100가지 만다라와 함께 하는
출렁이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명상 카툰 작가이자 명상 수행자인 저자가
마음공부를 위해 정성스럽게 그려낸 100가지 만다라 도안 수록!

미술 치료 기법 중 하나이자 명상의 한 방법, 만다라 컬러링!
선으로 이루어진 만다라에 색을 입히다 보면 출렁이는 감정과 생각 대신
고요한 마음에 다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고요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지음
144쪽 | 양장 | 올컬러
19,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다양한 난이도 다양한 형태의
100가지 도안
만다라 컬러링 시리즈


마음공부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글·그림
144쪽 | 양장
18,000원


마음챙김 만다라 컬러링 100
혜장 엮음
132쪽 | 양장
14,000원


만다라 컬러링 100
편집부 엮음
128쪽 | 양장
14,000원